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
 장 로 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안디옥 교회가 주는 감동Ⅱ” (Inspiration of Antioch Church II)

■ 사도행전 13:1-3

성경은 교회를 일컬어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가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큰 감동과 깊은 교제가 있는 완전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신분과 민족적 차별을 뛰어넘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지난주에 이어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도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벽을 허무는 공동체였습니다(행13:1).

안디옥교회가 서로 다른 신분과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은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엡2:1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되는 곳에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과 종을 부리는 주인의 견고한 담도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담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차별과 편견의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세상에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모든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안디옥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건 공동체였습니다(행13:2).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뿐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는 우리 서울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3.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행13:2).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명령이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망설이지 않고 금식하며 인수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헌신과 순종은 소아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 지역을 넘어, 로마와 전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는 우리 서울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 하나 된 교회를 세우며,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예배에 집중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21세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 세상에는 감동을 주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II,III,IV층
		교회학교 모임	오전 10시 - 10시 50분	
	I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III부	경배와찬양	오후 1시 30분	
		청 년 예 배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7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II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24개월)	1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디아스포라 부	오후 1시	903 호
유아부(25개월-5세)	2부 오전 11시20분	유아부 706호	Discipleship Program	오후 12시40분	101 호
유치부(6세-7세)	3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사 랑 부	오전 10시30분	102 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 호	에바다 부	예 배	오전 11시20분 603 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 호		성경공부	오후 2시-3시 603 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 호	새 가 족 부	1부	오전 10시
고 등 부	오전 10시	601 호		2부	오후 12시40분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 호		3부	오후 3시20분
청년 2부	오후 3시20분	601 호		학습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2 호
청년 1부	오후 3시20분	603 호		세례준비반	오전 10시 / 오후12시40분 607 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3시30분	501 호	장 년 부	오전 10시	본 당
청년 2부 토요집회	오전 8시	606 호	소 망 부	오전 10시	603 호
청년 1부 토요집회	오전 11시	603 호	소요리문답부	오후 12시40분	601 호
신혼가정부	오후 3시20분	802 호	신앙강좌 1,2부	오후 12시40분	901 / 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헌장은 서명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권 박광일 박진아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찬양담당목사 오세광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교육 목사 임규원 김한영 이종진 노경호

교육전도사 이진우 바다횡 최인애 하승일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광·주환나, 이시라, 권요셉·조예스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범·이현주(자지흐스탄)

스브로토보이아, 조남해, 박진영·김미성(영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한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영모, 추수호,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 Welcome!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Our '2012 Discipleship Program' will commence again next week at 12:45.
- Please continue to be faithful in our 'Read the Bible in One Year Program' and daily check out our website to read the Daily Bread. www.seoulem.org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정수길 목사	하인선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나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3:1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 다 함 께
* 산경교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 삼계명... 다 함 께 2부: 55(사127편)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8(28)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133:1-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천상의 기쁨"... 박노철 목사 (Heavenly Joy)
* 찬 송 Hymn	220(27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박노철 목사, 설교: 이종길 선교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46:5 ... 인 도 자
찬 송	201(240) ... 다 함 께
기 도	홍창훈 집사
찬 송	175(162) ... 다 함 께
성 경	마 25:1-13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켜있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설 교 자
* 찬 송	510(276) ...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 설교: 한상은 목사
II부 오후 7시	
기 도	I부: 정유선 권사, II부: 김희진 권사
성 경	행 26:24-32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이경화 · 홍해란 · 강양언
설 교	박노철, 정수길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진아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나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사랑	김은국	백경화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고덕환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길 되신 주님	Carl F. Mueller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종현1
찬양예배	베들레헴	그 사랑을 찬양해	이윤구	유태왕	최수환	김윤지	
영어예배	여루살렘	A clean heart	Benjamin Harlan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부	호 산 나	고난이 다했을 때	류근런	서희숙	김윤지2	홍해란	
수요 II부	시 온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Martin Show	최유현	김진형	박승기	

<한금송>

I부	고 등 부	감사드려요	외국곡	최영은		박승기	
II부	그레이트랜드	교회의 참 된 터는	Janet Linker & Jane Mcfadden	송재월			
III부	아편관현악단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Netherland fork song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여옥선	14-14	사라	안내팀	남경혜	13-11	보배	자비팀	임주빈	13-11	고등부	자비팀
류명열	2교구	모세	도고팀/이도성	정호희	13-16	루디아	화락팀	최익진	2교구	고등부	화락팀
이미란	2교구	애스터	도고팀/이도성	박현숙	13-23	루디아	자비팀	권용범	13-16	고등부	화락팀
김다희	14-9	애스터	본인	온인선	1교구	루디아	자비팀	최선진	2교구	고등부	화락팀
김원옥	14-14	엘라야	화평팀	전아다	14-14	루디아	안내팀	강채린	3교구	고등부	자비팀
김재학	1교구	엘라야	본인	이영희	13-31	루디아	자비팀	정효경	1교구	고등부	자비팀
이해진	14-14	애스터	안내팀	박재우	14-13	빌립	사랑팀	권용준	13-16	고등부	화락팀
김기욱	1교구	마리아	본인	강화주	14-13	도르가	사랑팀	임주원	13-11	중등부	자비팀
임근주	13-11	베드로	자비팀	이상순	10-6	도르가	안내팀	전우혁		초등부	자비팀
강주연	13-10	보배	화락팀	김승호	1교구	청년2부	본인	정유정	교 육	초등부	자비팀
최대선	16교구	베드로	본인	박예인	6교구	청년2부	인법장	최익진		초등부	화락팀
최창구	2교구	베드로	화락팀	박미연	9-9	대학부	박광일	정준환		유년부	자비팀
김수임	2교구	보배	화락팀	김주영	14-14	대학부	안내팀	아승준		유년부	본인
권세중	13-16	베드로	화락팀	장고열	9교구	대학부	윤봉준	전재현	1 국	유년부	자비팀
이정숙	13-8	보배	화락팀/고선옥	김신영	1교구	대학부	임병창	박보성		유아부	사랑팀

앞면에서 계속

8. 기도실 이용안내 /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교회는 교회당 3층에 기도실을 설치하여 성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장소: 302-306호 · 이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단, 기도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9.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0. 의료 상담 / 정철웅(일반외과), 최정희(치과)
 주일 오후 1시 0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3688-9123



기 도

기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절대자와의 거룩한 교제이며 신성한 대화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은 호흡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랑과 감사를 표하게도 된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으며 기도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을 도우시며 따라서 성도가 기도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의 모든 것에서 실패한 자와 같다. 기도는 영혼을 세롭게 하고 능력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세계를 움직이는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이며 기도는 기도하는 자보다 오래 살아 남아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짐을 나르는 헌신적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